

철학 토론문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규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
박정하 교수님의 <AI의 한계와 인간의 역할>에 관하여」

피아오광하이(朴光海) / 중국사회과학원

성균관대학교 박정하 교수님의 논문 <AI의 한계와 인간의 역할>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적용 현황과 ‘자기의식’, ‘반성 능력’, ‘도덕적 판단력’ 등 측면에서 AI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분석하여, AI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 결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인문학 및 인문교육의 중요성과 의의에 더욱 주목해야 하며, 특히 대학에서 의사결정 능력 함양 교육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실시하고 도덕적 판단력 함양 교육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하 교수는 또한 미래 AI의 발전 방향과 기술 응용 등의 측면에서 볼 때 AI와 인간은 상호 보완하고 협업해야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박정하 교수님의 논문에서 제시한 관점과 견해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AI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없으면 AI는 발원지 없는 물이자 뿌리 없는 나무가 됩니다. 특히 AI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 즉 입력된 지시에 따라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능력(음성 인식, 이미지 식별,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등)은 모두 인간이 설계하고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AI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이미 일부 분야 및 업무가 대체되었다고 해도), 인간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특히 인간의 단점(업무 효율, 기억력, 착오율 등)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물론 박정하 교수님께서 논문에 언급했듯이,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 결정되거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악용하게 되면 인류의 이익과 복지를 도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AI 기술의 발전과 적용이 가져온 영향 및 변화에 어떻게 적응 또는 대응해야 할까요? 박정하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깊이 있는 의사결정 능력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도덕적 판단력 함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하고 정부와 사회, 그리고 법률 차원에서의 제한과 규제가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AI 기술의 발전과 적용이 인류 사회 발전에 더욱 이롭게 작용하고 인류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하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한 규제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나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